

한국 소수자들의
문화적 전략
— 조선족 동포
이주여성의 경우¹

이해응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1 교차문화윤리 관점

한 여성학자는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식당 종업원의 말 한 마디에 그가 ‘조선족 동포 여성’임을 민감하게 인지하는 자신이 놀랐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조선족 동포 이주여성이 아무리 한국말을 유창하게 해도 ‘특유의 억양’으로 조선족임을 감지해 내는 감각은 구별 짓기 기술의 산물이다. 이러한 구별 짓기는 한국사회에서의 조선족 동포 여성이 갖는 특정한 사회적 위치, 이미지와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한 시몬 드 보부아르의 선언(『제2의 성, 1949년)처럼 “소수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와 같은 선언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아파두라이는 나치가 유대인들을 추출하는 과정 그리고 현대 인도 정부가 시크교도와 무슬림들을 ‘문제 있는 소수자’로 만들어 간 과정을 사례로 들면서 “소수자들이 폭력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적 차원에서의 폭력이 소수자라는 매개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²

조선족 동포 이주여성은 ‘동포’, ‘이주’, ‘여성’이라는 복합적인 문화정체성이 교차된다. 2018년 1월 현재 한국사회에 200여만 명 이주민 중 100만여 명이 동포 이주민이고, 상대적으로 한국어가 유창한 조선족 동포 이주민이 80만 명 이상이다. 그중 절반가량이 조선족 동포 이주여성이다. 같은 민족이면서 이주 배경을 갖고 있고 여성이라는 차이에 기반하는 ‘다문화 공존 관점’과는 다른

1
본 글은 《걷고싶은도시》 겨울호에 실린 「교차문화윤리와 조선족 동포 이주여성」의 2-3장 내용을 재구성하고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교차문화윤리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점이다.

2 조선족 동포 이주여성은 누구인가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해외 이민의 ‘송출국’의 입장이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9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외 이민자 ‘유입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2017년 현재 200만 여명의 이주민이 살게 되었고 그중 반이 동포 이주민이다.

조선족 동포는 누구인가? 한국에서 ‘중국 동포’, ‘조선족’, ‘조선족 동포’, ‘조선족 교포’, ‘한국계 중국인’, ‘연변 사람’으로 불리는 조선족은 ‘같은 민족의 뿌리’를 갖고 있지만 ‘중국인’으로 분류가 되는 해외 동포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버나드 T. 오드니가 그의 책 『낮선 덕: 다문화 시대의 윤리』에서 말한 교차문화윤리가 다른 나라, 다른 종족 사이의 교차문화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 윤리성을 강조한다면, 한국에서 조선족 동포들은 ‘같은’과 ‘다름’의 중첩 속에서 극과 극을 달리는 교차문화윤리에 직면한다.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법은 적용 대상을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후 해외로 이주한 동포로만 한정하여 100여 년 전 조선의 자연재해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등으로 중국에 건너간 조선족 동포는 배제되었다.³ 조선족 동포들은 ‘우리는 동포인가 아닌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같은 민족성’이 박탈되는 교차적 맥락에 빠지게 되었다.

조선족 동포 결혼 이주여성들은 어떠할까? 필자는 처음 한국에 유학 왔던 2000년 어느 옷가게에서 주인이 “조선족이에요? 결혼해서 왔어요?



2
아르준 아파두라이, 장희권 옮김, 『소수에 대한 두려움: 분노의 지리학』(에코리브르, 2011).

돈은 많이 벌었어요?”라며 질문을 퍼부어 서둘러 그곳을 나와 버린 경험이 있다. 당시만 해도 젊은 조선족 여성은 곧 결혼이주여성이라는 과잉된 이미지가 있었다.

90년대 초 한국인 남성과 조선족 여성의 국제결혼은 ‘농촌 총각 결혼 장려’라는 명분으로 지방정부가 지원금을 줄 정도로 성행했다. 조선족 여성을 국제결혼 대상으로 ‘선호’한 것은 ‘같은 민족적 뿌리’를 갖고 있어 ‘순수한 혈통’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선 조선족이 가진 역사적 배경과 차이를 이해하는 감수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같은 민족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 재생산 담지자로서’의 성역할 기대만 증폭되고, 반세기 이상 몇 세대에 걸쳐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온 역사적 배경에 대한 교차문화윤리적 이해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특히 조선족 동포들은 중국에서도 민족 언어를 상대적으로 훌륭하게 보존해 왔기 때문에 한국 언어문화로의 동화가 기대되고 요구된다. 동시에 한국어에 있어 표준어와 사투리가 사회적 위계를 갖듯 한국어와 조선족어가 위계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한국어를 쓰는 한국인과 조선족어를 구사하는 조선족 동포의 위계가 생긴다. 조선족 동포 ‘여성’은 이러한 위계질서 안에서 더욱 인정받기 어려운 처지가 되는 것이다.

조선족은 중국에서 항일투쟁을 했고, 민족대학교인 연변대학교를 세웠으며,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설립할 만큼 중국에서 스스로 민족성을 지키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낸 역사를 갖고 있다. 동시에 몇 세대를 거치면서 중국의 사회문화를 내재화하기도 했다. 이렇게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3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11개 독립국가연합(CIS)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함께 배제되었다.

민족적 정서가 연결되지만 사회문화적 정체성은 복합적인 조선족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을 하면 훨씬 어려운 교차문화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사회에서 조선족 동포들은 “잘사는 나라들의 동포는 ‘돈포’이고, 못 사는 나라들의 동포는 ‘똥포’다.”라고 자조하면서 한국인은 1등 시민,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는 2등 시민, 외국인근로자는 3등 시민, 동포는 4등 시민이라고 울분을 토로한다. 과연 ‘우리는 동포이지 다문화가 아니다.’라는 답론 하에서, 혼란스러운 질문이 생긴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조선족 동포 이주여성은 동포인가 다문화인가 제3인인가?

국제결혼가족 안에서 조선족 여성이 ‘같은 민족인’, ‘중국인’, ‘아내/며느리/어머니’라는 중첩된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한민족’, ‘한국인’, ‘남편/시아머니/자녀’와 대면하는 상황은 어떠하고, 이때 필요한 윤리는 무엇일까?

1990년 중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73.5%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고⁴ 맞벌이 의식도 강했다. 몇 차례의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유교 문화가 ‘낡은 악습’으로 치부되었고 가족 내 위계 문화도 점차 약화되었다. 이런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조선족 결혼 이주여성들은 한국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전업주부’ 개념, 견고한 가족 내 위계 문화에 큰 문화충격을 받는다. 다른 국적의 결혼 이주여성과 다르게, 조선족 여성은 언어소통이 되기 때문에 한국 가족문화에 따른 여성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강요받는 경우가 있다. “알아들으면서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거나, “알아들기 때문에 서로 간의 장벽을 깊이 깨닫고 뛰쳐나오게” 된다.

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2016)

필자가 인터뷰했던 한 조선족 여성은 중국에서 20대 때 자영업으로 꽤 큰돈을 축적한 독립적인 사람으로, 중국에 눌러 온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면서 한국에 오게 되었다. 언어소통은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일을 못하게 하고, 전업주부 역할을 강요받으며, “도망갈까 감시받는 존재가 되다 보니 자존심이 심하게 깨져” 끝내 이혼을 하고 집을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동일한 교차문화윤리에 직면하지만 다른 해법을 찾은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조선족 여성은 본인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제활동 참여를 시택 식구들이 존중해 줬고, 시부모가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까지 지원해 주면서 국제결혼 가족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문화적 충돌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고 한다.

3 조선족 동포 이주여성의 문화적 전략

필자가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이주여성 민간단체 ‘생각나무BB(이중언어-이중문화)센터’는 사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자녀 고민에서 출발했다. 고민의 내용은 주로 자녀들이 한국 출신이 아닌 엄마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이었다. 엄마의 출신이 자녀에게 ‘누’가 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온 결혼 이주여성들은 자녀들이 엄마의 출신 때문에 차별받을까 봐 국적 취득 후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

조선족 동포 결혼 이주여성들의 고민은 조금 더 남달랐다. ‘같은 민족’으로서 한국어가 능숙해지면 한국인으로 ‘위장’했기 때문이다. 자녀들도 처음에는 엄마가 조선족 출신임을 모르고 지내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이 되면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민감하게 깨달으면서 엄마의 출신을 감지하거나 묻게 된다. 이런 교차문화윤리에 직면한 엄마들은 ‘현명한’ 대답을 내놓기 어렵고, 결국 자녀들한테 ‘신뢰’를 잃게 되고 ‘자기 존중감’마저 위협받게 된다.

자녀가 철들기 시작하면 쉽게 무너지는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위장을 감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족’ 출신이 가족, 지역사회, 학교 모든 곳에서 떳떳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대응과 좌절은 우리의 소중한 인간관계의 ‘신뢰’ 형성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파가 매우 크다.

1990년대부터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기까지, 20여 년간 한국사회는 결혼 이민자 고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환대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올해에 이르러서야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고 국가 주도로 다문화 사회의 기반이 형성되면서 차이와 다문화 공존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1990년대 초에 가장 먼저 결혼 이민자로 한국에 유입된 조선족 동포 이주여성들은 드러내기 어려운 사회적 여건에서 ‘위장 전략’이 가능했다. 반대로 ‘다문화’라는 표기를 통해 출신을 드러냄을 ‘환대’하는 최근 10년 동안에는 조선족 동포 이주여성은 오리지널하게 ‘이국적’이지 않음으로 인해 다문화 대표성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온전한 인정을 받기 어렵게 되었다.

지혜로운 해법을 찾은 사례도 있다. 필자가 인터뷰했던 한 조선족 여성은 1990년대 초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아이가 엄마 출신을 물어 올 때 아이 스스로 판단을 내리도록 도와줬던 경험을 들려줬다. 이 여성은 아이에게 이렇게 되물었다. “만약 네가 커서 중국으로 가 몇십 년을 살다가 다시 한국에 오면, 너는 한국 사람이니 중국 사람이니?” 아이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이 여성은 다시 “엄마의 할머니가 한국(한반도)에서 살다가 오래전에 중국에 갔고 오래오래 살다 보니 엄마의 엄마를 낳았고, 그래서 엄마는 중국에서 26년을 살다가 한국에 왔으니 엄마는 한국 사람이니 중국 사람이니?”라고 물었다고 한다. 아이는 엄마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런 배경을 가진 엄마로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아마 엄마는 아이에게 또 다른 질문으로 도와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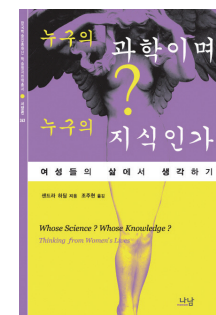
조선족 결혼 이주여성은 ‘같은 민족 여성’으로서 국제결혼 대상으로 환영받지만, 언어와 문화가 교차하는 과정에서 더욱 민감한 윤리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한편 조선족 사회에서는 가임기 여성 유실이라는 낙인이 찍혀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한다. 조선족 결혼 이주여성이 직면하게 되는 교차문화윤리는 국적, 민족, 종족, 세대 등 복잡한 갈래의 맥락들이 얹혀 있고, 성별에 따른 위계 문화가 강하게 작동한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몇 가지 긍정적인 사례처럼 한국의 가족 문화가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재구성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있기에 교차문화윤리의 해법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4 타자성의 존재 이유

최근에는 조선족 동포 부부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한국에 정착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 대부분은 본인과 자녀의 출신에 대한 교차문화윤리적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글로벌 다문화 시대에 나와 다른 문화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수긍하는 편이다. 오드니는 이주민(국내 이주민이든 국제 이주민이든)은 ‘이방인’이 갖는 타자성으로 인해 해당 지역사회의 견고한 성별 장벽에 균열을 내고, 맥락에 따라 성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특수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다른 입장의 시각과 관점을 제공하여 보다 더 민주적인 가치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여성주의자들이 강조해 온 강한 객관성⁵과 같은 맥락에 있다. 여성들은 남성 중심의 역사 속에서 늘 남성이라는 중심의 주변부에 존재해 왔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지식을 생산할 수 있고 이주민의 다른 역사 문화적 배경은 선주민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시야를 제공하며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주민 여성들은 비록 유입국 중심의 일방적

동화를 강요받지만, 선주민과는 다르게 기존 문화권 내 성역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것을 심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조선족 동포 이주여성에게는 중국의 ‘하늘의 반은 여성이 지탱한다.’는 진보적 젠더 관점, ‘소수민족언어 우선 표기’의 민족자치문화적 경험을 한국사회에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표준어와 조금 다른 어투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스스로를 위장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이주여성에 의해 교차문화윤리의 가능성은 열릴 것이다.



5

샌드라 하딩, 조주현 옮김,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여성들의 삶에서 생각하기』(나남, 2009).